

■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가 공모 심의 총평

○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

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추가공모 시각예술/전통예술/무용/문화일반 분과

○ 회의일시 : 2026년 6월 5일 10:00~18:00

○ 회의장소 :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

○ 심의위원명(가나다순) : 강호중, 박준흠, 박지수, 유경숙, 이나현, 이고은, 전민경, 최진

<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가공모 사업>은 문화예술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기획자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험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예술단체에게도 관련 인건비 지원 및 신진 기획자와 예술인을 발굴할 수 있는 발전적 기회를 만들고자 시행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.

때문에 심의에 참여한 모든 심의위원들은 <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가공모>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, 본 지원사업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숙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.

먼저 <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가공모 사업>에는 문학, 시각예술, 연극·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, 문화일반 7개 분야에 총 297건의 지원서가 접수되어 추가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본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또한 이번 추가공모에서는 기획행정 부문보다 창작예술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 창작예술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. (정시공모에서는 기획행정과 창작예술 두 부문을 모두 지원하였음)

그중 행정적 결격 건수 8건을 제외하고 총 289건을 최종 심의하였으며 지역균형지원 측면에서 비수도권 비율이 37.7%에 달해 정시 때보다 지역단체의 참여가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예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단순히 장애인 채용을 넘어, 그동안 본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했던 장애인 예술가의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에도 장애인 예술인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.

또한 시각예술, 전통예술, 무용, 문화일반 등 각 분야 심의위원들은 1차로 분야별 개별 서면 평가를 진행하였고 2차에서는 심의위원간 검토 의견을 교차 비교하며 단체의 사업수행역량과 의지, 고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.

이 과정을 통해 청년예술인의 인력활용계획, 2026년 단체의 활동계획, 실질적 근로 환경, 수행하게 될 실질 업무, 이전 실행 이력, 모니터링 결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에서 함께 하게 될 청년예술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창작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, 규모가 작더라도 청년예술인에게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

이에 <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가공모 사업>에서 추가로 선정된 예술단체와 청년 예술인에게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더 멋진 미래를 기약하는 발전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라며, 금번 추가공모에서 기회가 닿지는 못하였더라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활발한 문화활동을 이어나가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심의위원 일동